

“상월선원 결사 뜻 이어 한국불교 쇄신 앞장”

한국불교중흥을 발원한 9명 스님들의 위례천막결사가 막바지로 향하며 결사 대중들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계종 중앙총회의원들도 위례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에 동참했다.

중앙총회의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장명·범원 스님, 상임분과위원장 등운·만당·상덕 스님을 포함한 중앙총회의원 50여명은 1월18일 오후 상월선원에서 ‘회향과 공존, 상생을 위한 용맹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중앙신도회, 동국대 교직원, 조계사 신도 등 대중 200여명도 동참했다.

중앙총회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혹독한 계절이지만 상월선원 결사정진은 더욱 뜨겁고, 부처님 은혜 보답하고자하는 마음은 너무도 절실하다”며 “국민들은 원용화합을 이루고, 수행자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한국불교 미래가 환하게 밝아질 때까지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불문에 이어 중앙총회의장 범해 스님은 “9명 스님들의 정진으로 한국불교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찬탄했다. 스님은 “9명 스님들은 그동안 흰서리와 눈부신 달을 도반 삼아 정진했고, 날카로운 서릿발 끝에 백척간두인 일본의 마음으로 올라섰다”며 “한국불교가, 조계종이 사부대중으로부터 감동과 진정성의 종교로 거듭나도록 돌파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법회에서 한국불교의 위기는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범해 스님을 포함한 50여명의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이 위례 상월선원에서 용맹정진 하며 천막결사에 동참했다.

총회의원, 1월18일 정진 “상월선원 결사, 한국불교 대전환점” 동국대·조계사 등 200명도 동참 “결사대중 가르침대로 정진”

서 해법을 찾아야 함을 역설하며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신심과 감동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수행에 출가와 재가, 산중과 도심이 따로 없고, 작은 차이를 넘어 원용하고 화통해야 함도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결사 대중들의 정진을 응원하고 이번 정진의 의미를 되짚는 총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차석부 의장 범원 스님은 “9명 스님들의 수행 결사로 종단의 수행풍토가 진작되고 새로운 불교를 위한 희망이 켜지고 있다”면서 “중앙총회의원으로서 작은 힘

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비구니 총회의원 진명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목숨 걸고 정진하는 스님들의 참뜻을 있는 방법은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면서 “9명 스님들의 숭고한 정진을 본받으면서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스님답게’ ‘불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총회의원이자 상월선원 총도감 해일 스님은 결사 대중들의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스님은 “동안거 결사가 70여일이 되면서 스님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2~3일전에는 결사

대중 가운데 의식을 잃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그럼에도 의식을 회복하면 진료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의회대중들에게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면서 “심지어 몇몇 스님은 하루 한 끼의 공양마저 마다하고 겨우 방울도마도 3개, 두부 4쪽 정도만으로 버티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행자로서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중스님들을 볼 때면 존경심이 저절로 든다”고 밝혔다.

총회의원스님들의 결의 발원에 이어 참석 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좌선 등을 진행하며 천막결사 대중들의 원만 회향과 한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발원했다.

위례=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창원불교연합,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소외이웃에 5000만원 후원도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 스님)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주관한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사진)’이 1월17일 오후 5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봉행됐다. 흥고불심 금강자비회 전 이사장은 이날 불심으로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말 고(故) 장양희 불자의 뜻을 기리며 창원시불교연합회에 봉사기금 300만원을 전달해 장내를 숙연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 스님)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주관한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사진)’이 1월17일 오후 5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봉행됐다. 흥고불심 금강자비회 전 이사장은 이날 불심으로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말 고(故) 장양희 불자의 뜻을 기리며 창원시불교연합회에 봉사기금 300만원을 전달해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이날 창원시불교연합회는 창원시 한부모세대주와 다문화가정, 장학생들을 위해 성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 경남지사=최홍석 지사장

자비실천운동본부, 청주교도소에 설 선물

1월21일, 사과 1200개 전달

자비실천운동본부(이사장 해광스님)는 1월21일 교정협의회와 함께 설날을 맞아 청주교도소에 사과 1200개를 전달(사진)했다.

해광 스님은 “가족과 사회에 과거 일을 사과하고 상급한 미래를 꿈꾸라는 의미에서 명절선물을 준비했다”며 “선물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겨 성실히 생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응분 소



장은 “설을 맞아 고향의 향기를 전해준 것에 깊은 감사와 함께 수용자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인사했다. 충청지사=강태희 지사장

창원 수산자비선원, 창건 30주년 법회

1월21일, 세계불교 가산 스님 법문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수산 스님)은 1월21일 선원법당에서 ‘창건 30주년 기념 법회 및 천도재(사진)’를 봉행했다.

수산자비선원 주지 수산 스님은 “30년간 불교발전과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해 6차례 불교인 단합대회, 16차례 시민 화합잔치를 개최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사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



성 스님의 법어와 세계불교 교황 석가산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김지수 경남도의 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명이 함께하며 축하했다. 경남지사=최홍석 지사장

아미타불 계시는 이상향 ‘정토’를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개편 ‘극락에서 강림’ 등 23점 소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을 ‘정정한 이상향, 정토(淨土)’라는 주제로 새롭게 선보인다.

정토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머물고 있으며,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이상향이다. 옛 사람들이 꿈꾼 정토의 모습은 어땠을까. 조선시대 조성된 ‘극락에서 강림하는 아미타불’은 정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불화다. 금동으로 조성된 ‘부처를 모신 작은 집도 부처

님이 머무는 찬란한 세계를 보여준다. 부처님과 두 보살을 중심으로 뒤쪽에는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는 나무와 누각, 앞에는 네 마리의 새가 앉아 있는 연못의 전경이 새겨져 있다.

영취산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석가모니불과 설법이 잠든 진리라고 찬탄하는 다보불, 그리고 극락정토로 영혼을 인도하는 아미타불까지 그려진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은 이와 같은 세계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임을 잘 보여준다.

“왕생자를 맞이하는 아미타불은 극락에서 태어날 사람(왕생자)을 맞이하기 위해 아미타부처님이 여러 보살을 이끌고 강림하는 모습이다. 감로를 배

풀어 아귀를 구함’은 영혼이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며 사용된 의식용 불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불의 공덕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명한 ‘정토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 극락으로 안내하는 아미타불과 인로왕보살을 그린 ‘극락으로 인도하는 배’, 극락왕생을 바라며 왕실 기도처에 봉안한 ‘지장삼존도’, 가족의 명복을 발원한 ‘화엄경 사경’ 등 23점이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옛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며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처럼 현실을 벗어날지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교체



‘극락에서 강림하는 아미타불’, 조선, 비단에 금니.

되는 전시품을 보면서 번뇌와 집착 없이 즐거움만 가득한 곳, 정토에서 잠시 쉬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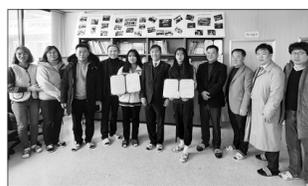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전주모악로타리클럽, 지역 청년들에 장학금

1월16일, 중·대학생 각 50만원씩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모악로타리클럽(회장 장학수)은 1월16일 착한벚들(대표 회일 스님) 사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우석대 간호학과 신입생 북한이탈주민 김모 학생과 전북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송모 학생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모악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날 장학수 회장과 함께 착한벚들 사무실을 찾아 장학금을 직접 전달했다.

신용훈 기자 boorif3@beopbo.com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궁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 (1년)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신빌딩 3층)
http://www.pbsa.net FAX : 02)737-5305

이보다 더 좋은 법당 앰프 설비는 없다!

『고급 K2 앰프 System』 국내 최저가 설치...
구형 앰프는 60만원 현금 보상!

회사창립 : 1980년



법당용 최고급 K2 System 구성

- 800W 10CH USB 믹싱앰프 1대
- 450W YUKO스피커 1셋트
- 900메가 헤드셋 무선마이크 2대
- 900메가 핸드 무선마이크 2대
- 유코음향 제조 탁상마이크 1대
- 고급외부 방송스피커 2개
- CD기(USB겸용) 1대
- 미제 stanley마이크 1개
- 고급 마이크스탠드 1개
- 이동형 엠프타이 1대

*플랫트 출장 설치 가격 : 335만원



- 900메가 무선마이크
- 900메가 무선마이크
- 미제 stanley마이크

법당 앰프 셋트당 가격

- 기본형)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 B형 : 127만원 (A형+무선헤드셋1조)
- C형 : 185만원 (B형+무선헤드셋2인용+구즈넥+CD)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C형+외부스피커3개)
- 최고급형 일절 : 335만원(800W 사철전체 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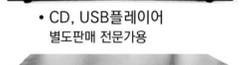
기본형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출장비를 받습니다.

본 탁상 구즈넥마이크는 1980년 초부터 한국 마이크 시장을 개척, 주도, 수출하며 독일 유럽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마이크장인 김문화가 직접 제작함!

- 주지스님 전용
- 구즈넥마이크 (자체소리조절)



· 300W 4CH 앰프
USB, 마이크 4개 사용



· CD, USB플레이어
별도판매 전문가용



· 더블 카세트덱 전문가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제1급아마추어무선사

주문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 02)733-1959
720-1836